

13. 새로운 살 길(하나님께로 가는 길)

2018. 10. 12. 이현래 목사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10:19,20).”

예전 성경에는 ‘새롭고도 산길’이라고 했는데, 이번 번역에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번역했다. 어째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동산이 폐쇄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3:9).**”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이삭 야곱까지는 찾아오시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세도 물론 찾아가셨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는 제사장이 이끄는 백성이 있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법도를 가르치신 셈이다.

거기서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의 길이 갈라져서 선지자는 하늘에서 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었다.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이니까 새로운 길, 옛날 길과 다른 그 길을 찾아보겠다.

아담의 길은 결국은 바벨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적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3:9).**”하고 찾아갔는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3:10).**”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 속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종교가 생긴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시시대에는 종교를 가졌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종교를 가졌던 것이다.

가인과 아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나왔다.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을 좀 달래보려고 온 것이다. 제물을 가지고 달래보려고 한 것이

다. 원시적인 생각이다. 본능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달래고 화해할 때도 결국 대접하면 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도 뭔가를 대접하면 된다는 관념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얻은 소출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갔다고 한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결국 불행한 자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는 세계는 정치적이랄까 사회적이랄까 그런 길이다.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는 결국 바벨로 가는 계보였다. 바벨로 가는 계보는 정치적인 길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로인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람을 불러내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패했다. 기독교가 희랍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교화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희랍화 되고 말았다. 로마 세계를 교화하려다가 오히려 로마화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결국 실패한다. 하나님께서도 오죽하면 바벨 속에 들어가서 바벨을 고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러냈겠는가? 불러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러낸 것이다.

깨는 섞어 놓으면 잡초에게 못 이긴다. 농사짓기 제일 어려운 점이 잡초라고 한다. 잡초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농사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잡초가 나버리기 때문에 씨를 구별해야 한다. 농사짓는 데는 씨를 엄선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씨를 구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총주에 있을 때 누에씨를 만드는 일을 하는 여자 장로님에게 들은 이야기다. 잠종장이라고 하는데 허가업이라서 한 도에 하나씩밖에 허가가 안 된다. 허가만 받아놓으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다. 그분 말씀이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장사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들은 뽕을 키워서 그 놉을 실을 만들 때까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잠종장에서는 일 년에 딱 3개월만 일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땅도 많이 필요 없고 수입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했다. 씨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럴겠는가.

예전에는 각자 집에서 누에씨를 만들어서 했는데 명주실이 들쭉날쭉하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 사적으로

는 못하게 하고 있고 일정한 곳에서만 생산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씨를 어떻게 업선을 해서 구별해내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 우리도 사람들을 불러내야 한다. 교회로 불러 들여야 되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70년대 그런 것이 한번 유행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피크닉 교회도 있고, 다방교회도 있다. 이런 것이 많이 생겼는데 다 실패하고 말았다. 참 좋을 것 같다. 굳이 주일날 교회 갈 필요 없이 여름에 바닷가로 나가고 하니까 같이 따라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타 들고 모두 갔다. 그런데 다 결국 실패했다.

옛날에는 다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다방 목회를 하자고 들어간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실패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창녀촌에 들어가서 목회한다고 들어갔다가 다 실패하고 말았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원체 세력이 크기 때문에 씨는 아직 적고, 그 세력은 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나님도 바벨로 가는 세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12:1).”고 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지시할 곳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어디로 갈 것 인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천당에 가기 위해서 간다. 요즘은 천국에 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당도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안 쓰고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에 간다는 말도 개념이 애매하다.

내가 돌아갈 곳을 알아야 가지 갈 곳을 모르는데, 어디로 가겠는가? 회개는 매번 모일 때마다 하는데 어디로 회개하는가? 돌아갈 곳이 있어야 회개를 한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수많은 설교가 있고 신학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것인지 대답이 애매하다.

예수 믿어서 무엇하냐?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없다. 성경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구

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3:15).”라고 말한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간다는 말을 하라는 것이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 말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옛날 사람들은 그냥 천당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간단하게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는 씨가 먹히지 않을 것이고 천당에 간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다 웃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간다고 하면 천국이 어디인지 모른다.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니까 막막한 일이다. 죽은 후에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역시 막막한 일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왜 서구 사회에서 쇠퇴하고 있는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쇠퇴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교회가 아니면 안 되던 일들이 지금은 교회 없이 더 잘되고 있다.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렸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간다고 한다. 엄청나게 교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고 있고 천만을 자랑하던 기독교가 심지어는 6백만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들지만 교회 인구가 더 많이 줄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전도를 한다고 가보면 학생들 말이 ‘왜 꼭 그것뿐이라고 합니까?’라고 한다. 강요하지 말라고 한다. 그것은 당신이 좋아서 하는 것이고 도대체 그것을 강요하면 되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거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옛날처럼 어디가 길인가 찾는 학생들이 없고, 길은 각자 찾아봐야지 당신이 좋은 길이라고 나한테도 좋은 길이나고 한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전도하려 가서도 할 것이 없다. 70년대 엑스플로 74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영리를 가지고 하면 교회를 따라 나온다.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었으니 교회로 가자고 하면 이전에는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C.C.C. 간사에게 물어봐도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을 해서 끌어 모은다고 한다.

이번에 K-POP을 보니까 유럽에서도 젊은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다. K-POP이 도착한다고 하니까 젊은 애들이 얼마나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모른다. 공항에 나와서 자기들 앞으로 지나가니까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한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뛰는 것을 보니까 머지않아 온 지구의

인류가 한꺼번에 뿔 것 같다. 그 리듬이 아주 단순하다. 그냥 아무라도 뛰면 된다. 그러니까 그리 다 몰린다. 저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 저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젊은이들은 그런 데로 가고 없고, 복음을 들으러 오라고 하면 안 온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구원이라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선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한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 것인지 갈 길을 제시해야 되고, 분명한 목적지를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10:19).”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10:20).”고 했다.

결국은 십자가이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전해서 K-POP에 뛰는 사람들을 십자가로 뛰게 할 수 있겠는가? 난감한 문제이다. 새로운 길이라고 했으니까 옛날 길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사, 제도, 율법, 왕, 이런 것들이 구약을 지배하던 세계이다.

그런데 이것은 왜 주어진 것이고, 왜 이렇게 생겼는가?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준 것이다. 율법도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 성전도 마찬가지로 왕도 마찬가지이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생긴 것이고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옛길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다 옛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위치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올 때는 다른 것이 되어서 나온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주었을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화해낼 때는 자기대로 내놓는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악기가 여럿이면 다 다른 소리가 나온다. 이번에 교회에서도 울산에 최*주 형제가 재주꾼이라서 온갖 악기를 다 다룬다. 그래서 가방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하고 나면 저것하고 하면서 여러 사람을 웃겼다.

옛날에는 피리를 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피리까지 불었다. 같은 입으로 피리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하모니카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오카리나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온다. 악기 나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원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다 사람을 통과해서 나온 것이다.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겠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 내놓은 것이 율법이고 제사이다.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꼭 어떤 언어를 듣기 전에 영감 같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본 것이다. 무엇을 봤는데 그 본 것을 말로 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됐다. 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

신기한 것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사람숫자도 많지만 시대도 각각 다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양은 조금씩 각자 다르지만 방향이 한 방향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이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여러 사람인데 방향은 다 같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신기한 일이다.

새로운 길, 새로운 살 길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답이 없는, 결론이 없는, 아직은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보더라도, 네 자손을 줄 것이다. 하늘에 별 수와 같이 땅의 모래 수와 같이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이를 것이다. 다 약속은 영원이다.

그런데 보면 그냥 육신의 자녀로 끝난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 100살에 받은 이삭은 사실은 사람으로 낳을 아들이 아니다. 누가 봐도 그때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후손이 가다보면 다른 사람이나 별 다를 것이 없이 되어 버린다.

나라도 그렇다. 영원한 홀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되었냐? 안되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모든 것이 다 아직 답이 없는 것이다. 감 같으면 분명히 감으로 열려서 퍼렇게 클 때까지는 감이었는데 익지 못하게 되어 버리면 먹을 수 없게 된다. 그와 같이 구약에 제시된 모든 계시도 언젠가 답이 없으면 그냥 뚝은 감처럼 그렇게 되고 말 일들이다.

그래서 구약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약은 바로 그분이 왔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마지막에 가면 왜 있었던 가를 모른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옛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모든 세상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로 모여들 것이다. 그것이 되겠는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뭐가 전환이 안 되면 아무것도 대답이 없다.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믿음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니까 몰랐기 때문이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모르는 분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다.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는 너무 분명하게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가 아니었다. 하나님이였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이마르면 반석을 깨서 생수를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었다. 갈 길을 모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와서 길을 인도했다. 그런데 그분을 모른다.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고만 있을 뿐이지 그분을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그것이 구약시대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바알을 섬겼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 다르고, 바알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했으면 믿겠는가?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식만 다를 뿐이다. 바알을 섬겼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목민으로서 광야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날그날 만나를 못 받으면 먹고 살수 없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해도 불안정한 시간이다.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틀 분을 갖다 놓았더니 썩어버리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늘을 쳐다봐야 한다. 참 은혜로운 시간 같지만 참 불안한 시간이다. 온갖 것을 다 보았다.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불안하다.

요즘에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속으로 굉장히 불안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 아닌 다른 힘이 와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불안하다고 한다.

무당도 그렇다고 한다. 귀신 무당이 있는데 친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하는 말이 늘 불안하다고 한다. 갑자기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면 변해서 처녀 귀신이 들린 사람은 처녀 소리를 하고 동자 귀신이 들린 사

람은 동자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기 의지와 다르게 행동한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내가 누군가 하는 생각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다.

요즘에 소위 은사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이다. 불안하다. 기도를 하지 않고 불안하고,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런 말이 나왔다.

사람 자체가 무엇이 안 되니까 무엇을 해도 불안정하다, 가나안땅에 들어가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산다. 자기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만나도 이분까지도 못 가지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다. 예측 가능한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씨를 뿌리면 언제쯤 열매가 맺는다. 기다릴 수 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살아온 생활은 예측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왔다.

지금 사람들이 모두 보험에 들고 연금 받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연금 나오는 직장이 최고로 좋은 직장이다. 왜냐하면 직장을 나오면 다음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불안하다. 그런데 연금 나오는 직장은 직장을 나오면 연금을 받으니까 아주 안전하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다.

봄에는 가난해도 가을되면 풍성하다. 왜? 열매를 맺을 것이니까 예측이 가능하다. 우리 인생도 예측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놀랐다. 우리가 광야에서 여호와라고 했던 분이 바로 바알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된 것이다.

그리고 또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알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여호와보다 당장 예측 가능한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신이 바알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백성들이 모두 우리가 지금까지 혜택을 입었던 그 신은 바알이라는 신이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이적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항상 그렇게 이적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나중에 가면 안 나타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개하기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더니 되더라고 하면 그리 간다. 가서 효과를 한번 보면 그리 가버린다.

왜냐하면 자기 목표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이고 구약의 상태이다. 구체적이고 확실

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더군다나 우리 자신에게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공허해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도해 본적이 없다. 그런데 미리 다 준비해놓았다. 내가 가는 길에 약을 준비해놓듯이 다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내가 신기한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해보았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 전에 준비해 놓은 분이 있어서 내가 혜택을 입었을 뿐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나는 예수를 몰랐다고 할 수 있다.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혜택을 주신 그분을 믿은 것이다. 그것도 참 좋았다. 정말 좋았다.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되었으니까 좋았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답이 아니다.

왜 예수가 필요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새롭고 산길, 새로운 살 길, 이것이 바로 예수이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했는데 이런 말이 아무데도 없을 것이다. 다른 데는 다 모르지만 이것이 길이라고 하는 데는 있지만 내가 길이라고 하는 데는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참 말이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하다.

“내가 곧 길이요(요14:6).”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며 더 헛갈렸다. 내가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느냐고 방법을 묻는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14:8).”**고 했더니 더 답답한 이야기를 한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9).”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하니 제자들이 말을 못하게 되었다.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길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런데 길은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곧 길이라고 했다. 내 생각에 이런 사람은 없다. 공자님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 당연하고 석가모니도 그렇게 말을 안했을 것이고, 내가 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예수밖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다. 직접 말씀을 한 것인지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내가 길이라고 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이것은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다. 그냥 방문하고 오는 길이 아니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하나되는 일이다. 아버지를 만난다면 둘이 하나 되는 일이다. 그것은 나밖에 없다.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어떤 상태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문제이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시집을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고 물으면 요즘에 컨설팅 하는 데가 많다. 애인이 없으면 상담소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가르쳐준다.

그런데 그 길로 한다고 다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나니까 결혼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 사람 자신이 길이다. 만나보면 결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런가? 그 사람 자신이 길이기 때문이다. 신랑 될 사람을 만나보고 신랑을 삼거나, 신부될 사람을 만나보고 신부를 삼는 것이다.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다. 저 사람이 내 맘에 든다. 이래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들로밖에 갈 수가 없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요 4:20).”, “어디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요4:21,23)”라고 했다.

여기서 또 잘못 생각하면 영과 실재로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들로만 아버지께 예배가 된다는 뜻이다. 아들이 아니고서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만을 기뻐한다. 그 아들이 예배이다.

내가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 예배가 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마17:5).” 그 말은 예배가 됐다는 말이다. 거기에 무슨 예배의식이 필요하고 무슨 순서가 필요하겠는가? 무슨 다른 예물이 필요하겠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마17:5).”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들밖에 없다. 아들로밖에 아버지를 기쁘게 할 방법이 없다.

우리 교회에 집회하는 것을 보고 예배는 언제 드리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장모님이 4대째 장로교인이다. 그런데 대구로 이사 오셔서 사위가 목사니까 사위 교회를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아주 고민이 깊었던 것 같다.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예배가 없다고 장모님의 고민이었다. 그래서 아홉시 다른 교회 1부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 교회에 2부에 오셨다.

예배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한참동안 생활하셨다. 그 후로 알아들어서 그러셨는지 귀찮아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만 나오셨다. 4대째 기독교인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 박혀있다.

하나님에게 무슨 의식이 필요하시겠는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무슨 의식이 필요하겠는가? 내가 나가는 것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해석하는 것도 역시 그런데서 나온 것이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다고 했다. 이것을 가인과 그 제물로 생각하지 않고 가인의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열납하셨다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볼 때 아벨의 제물은 희생제물이다. 동물의 제사이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다. 그것도 소제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때는 속죄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을 드렸으니까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은 빼놓고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벨은 좋은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싸구려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생각한다. 하나님이 볼 때는 가인이냐 아벨이냐 이것을 보는 것이고, 제물은 단지 그 사람의 표시에 불과하다.

제사를 잘 지냈다고 해서 효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풍습이 많다. 살아계실 때는 불효자식인데 돌아가신 후에는 굉장히 제사에 정성을 쓴다. 아주 정성을 많이 쓴다. 머리카락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목욕재개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한 밤중에 12시가 되기를 기다려서 12시 넘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조상이 그때밖에 안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드리는지 모른다.

가난한 집에서도 그날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써서 반찬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는 그런 정성을 안 들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제물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자식들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 똑같다.

우리 지방에 가면 묘한 풍습이 있다. 정월 보름날이 되면 풍랑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집집마다 짚에 제물을 담아서 바닷가에 놔둔다. 그런데 그 위에 항상 가파래라고 하는 것을 얹어 놓는다. 속담에 가파래로 귀신 눈 속인다고 한다. 바닷가에 있는 귀신이니까 가파래로 귀신 눈을 속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얼마나 우스운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이다. 제물을 무엇을 가져 갈 것이냐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지 제물이 제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먹겠는가? 기름을 마시겠는가?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 표시로 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으로 가느냐가 문제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요14:6).”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만 예수와 같은 제물이 된다. 내가 무엇이 따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만 나는 예수와 같은 제물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가 길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길이다. 하나님은 나 된 대로 받는다. 내가 제물이 좋으면 더 잘 받고 제물이 나쁘면 덜 받겠는가? 제물보다 나를 받는다. 나를 필요로 한다.

부모가 원하는 것도 그것이다. 선물을 많이 사오는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아들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기가 어렵다.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하면 어렵다. 우리 장모님이 그렇다.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예배를 못 드려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항상 짹짹하다. 그래서 연구한 방법이 아홉시에 1부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에는 말씀을 들으러 오셨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배의식이 없었다. 그것은 내가 C.C.C.에 있었기 때문이다. C.C.C.에서는 둘러 앉아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내가 의식을 폐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데, 해보니까 이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의식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안 그렇다고 생각해도 그 의식을 지내

지 않으면 내가 짹짹하다.

북한 사람들은 가슴에 다 김일성 뱃지를 달고 다닌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뱃지를 단것과 달지 않은 것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 군인들이 군복을 입었을 때와 입지 않았을 때가 다르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무슨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천주교는 지금도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그런 것을 타파한다고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강화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실속이 없으니 제물이라도 드려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근사하게 예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큰 교회에서는 그것만 따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하고 있다.

캐톨릭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 오늘 예배할 때는 어떤 제복을 입는다거나 다음 주일날은 어떤 색의 제복을 입는다는 것이 다 정해져 있다. 전 세계에 캐톨릭 사람들은 어디로 여행을 하든지 가보면 다 똑같다. 자기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나 외국에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나 똑같다. 사제가 입는 옷이 똑같고 하는 방식이 똑같다. 어떤 일체감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새롭고도 산길은 예수 안에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잘 믿을 수도 있고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확고하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 가면 한계가 생기게 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계가 생긴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는가? 전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셨는가?

유대인 6백만이 학살당할 때 여호와와는 어디로 갔는가? 당연한 질문이 아니겠는가? 아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가고 없는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좀 가벼운 사람들이 그런 저주의 말을 했다. 예수님을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 달라.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하니까 좋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 달라, 우리 조상에게 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6백

만이 학살당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

죽은 사람들을 애도해도 시원치 않은데 죽을 놈이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가? 그리고 무자비한 소리인가? 우리는 다 뜻을 모르고 있는데 아는 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찌 알겠는가?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다 알겠는가?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필요 할 데가 있지만 궁극적인 자리에 가면 다 소용이 없어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써 있는데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런 데가 없다. 100살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는가?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한다. 믿음이 있으면 웃었겠는가? 아무것도 없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한 것이다. 그 믿음까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라도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다. 그것이 100살이다. 나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참 좋아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나온 것은 이스마엘이다.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너무너무 좋다. 왜냐하면 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니 너무너무 좋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사람이 언제 완전해지겠는가?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내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는가?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너무너무 좋은 말이다.

나도 한때 그것에 취해 있었다. 그렇지 뭐, 사람이 언제 완전해지겠는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정죄 안한다니까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든든하였다. 그런데 항상 속에 짹짹한 것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가 의롭다하는 말을 받으면 괜찮은데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짹짹한 것이다. 양심의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양심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항상 미진하다. 화장실에 가서 똥을 닦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짹짹하니 항상 그렇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 만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끝난다면 십자가가 없어도 된다.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있으니 그 정도 믿음은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면 된다는데 그것도 못 믿으면 되겠는가. 그런데 한계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자고 나온 사람이 성결파이다. 요한 웨슬레이다. 점진적인 성결을 주장한다.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정말 경건하게 한다. 우리 교단에 선교사로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봐도 굉장히 검소하다.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기독교인의 어떤 것이 잡혀 있는 사람이다. 5살 6살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에 데려오면 부인이 자기 옆에 앉혀 놓는데 아무 소리 없다. 집에서 얼마나 훈련이 잘되어 있는지 모른다.

이 사람들은 땅도 안보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더러워서 안 보려고 한다. 그렇게 경건하게 생활한다. 그 사람이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때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지 완전해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면서 대들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느냐고 한 시간 동안 내내 토론을 하느라 강의를 못하고 말았다. 그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양심에는 가책이 된다. 그런데 해결 안 되니까 그것밖에 없더니 그거라고 감사했다. 그렇게 점진적인 성결의 생활을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율법이랑 또 뭐가 다르겠는가? 율법 생활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처음에 미국을 갈 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것이 관심거리였다. 그런데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유대인들을 만났다. 랍비들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림새가 여름인데도 까만 양복에 까만 구두에 까만 모자에 구렛나루 수염이 나 있는데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유심히 바라보았다. 보통 사람 같지 않았다.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몸에 배어있다. 권세 있게 보이고 정말 거룩하게 보였다. 저런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서 우리가 잘못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서부터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외식이 아니었다. 외식이라고 할 수 없다. 너무나 점잖다. 그 앞에 가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더라. 얼마나 차림 자체가 거룩한지

옛날 우리나라의 양반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성결한 생활을 해서 성화에 이르게 된다면 율법주의 이상 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서 태어난다. 미간에도 붙이고 옷자락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전부가 율법 분위기 속에서 산다.

지금 살면서 아무리 성결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되겠는가? 성결교회 사중교리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성결이다. 중생성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와의 연합이다. 예수와의 연합이 없이는 무엇도 답이 없다. 어떤 것도 답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답이 없다. 그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하나로 만나질 때 보좌 우편에 간다면 보좌 우편에 가는 것이고,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너무나 완전하다. 그것이 배필의 길이고 더 올라가면 형상이라는 길이다.

사람은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렇게 만나지기 전에는 사람의 완전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만나지는 것이 바로 완전이다. 그분과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로 발견되는 이것이 완전이다.

우리가 인간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전부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함께 만나진다면 그런 세계가 아닌 것이다. 다른 세계다. 그러니까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느냐 하는 세계가 아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되는 자리는 어떤 운명적인 자리이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다.

개구리가 그르냐 두꺼비가 그르냐는 말이 안 된다.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옳은 것이고, 두꺼비는 두꺼비대로 옳은 것이다. 개구리가 두꺼비처럼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냐 두꺼비가 개구리처럼 안 된다고 해서 불완전한 것이냐고 할 수 없다. 개구리는 개구리로 완전하고, 두꺼비는 두꺼비로 완전하다.

인생은 형상으로서 완전하면 된다. 왜냐하면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형상으로 완전해져야지 자기 혼자 독립해서 완전해진 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거역이다. 스스로 온전해지는 것, 스스로 완전해지는 것,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역이다. 우리는 형상으로서 완전한 것이다.

여자는 여자로서 완전하고 남자는 남자로서 완전해야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면 되겠는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러면 또 되겠는가? 여자가 남자가 못되어야 남자가 필요하지 나 혼자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 결혼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지, 여자도 결혼을 안 하면 안 될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지, 결혼을 안 해도 말짱할 사람이 결혼을 해보아라. 잘 못산다.

남자도 마찬가지이다. 여자가 아니면 안 될 사람이 결혼을 해야지, 여자 없어도 잘 살 사람은 결혼을 해도 파토난다. 여자는 여자로서 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고, 남자는 남자로서 완전한 그것이 완전한 것이다.

인간은 형상이다. 형상으로서 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니까 둘이 연합하면, 하나 되면 그것이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우리 자리로 회복되어서, 우리 위치가 회복되어서, 연합의 길 안에 들어서면 아무 문제도 없다.

인간의 약점이라는 문제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다. 이것이 인격의 충만이다.

인격이 제대로 제 자리를 찾았으니까 여자가 남자를 찾은 것이고 남자가 여자를 찾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은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다. 그러면 완전한 것이다. 생명의 완전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필이 되고 나라가 되는 것이다.

거기는 다른 법이 작용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8:1,2).” 죄와 사망의 법이 왜 왔는가? 우리가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제 위치에 가면 죄와 사망의 법이 없다.

미국에 가서 영어 못하면 답답하다. 그런데 KAL기타면 바로 해결된다.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다 해결되고 만다. 왜냐하면 한국말이 다 통하기 때문이다. 미국 비행기를 탔더니 따뜻한 물 한잔 얻어먹기 어렵다. 영어가 잘 안되어 따뜻한 물 한잔 달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른다.

미국에 가면 누가 혹시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공포심이 생긴다. 그런데 KAL기가 비싸도 왜 타는가? KAL기 타면 편하다. 판이 바뀌지

면 법이 다 바뀌진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와 하나 되어서 그와 더불어 하나 되는 이 연합의 세계로 들어가면 판이 바뀌진다. 우리가 잘했니 못했니, 죄니 아니니, 악이니 선이니 하는 그 판이 다른 판이 된다.

영어판에서 한국어판으로 바뀌지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편한지 모른다. 자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자유이다. 영어를 못하니까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낀다. 그런데 KAL기를 타면 영어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비빔밥 주면 먹고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세계를 바꾸고 판을 바꾸면 모든 관념이 다 바뀌진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이러니저러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것은 왜 저러냐 이것은 왜 저러냐 하면 참 안타깝다. 판이 다른데 미국판에 있다가 한국판에 오면 다른데 미국판을 가지고 한국판을 보니까 문제가 많을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판을 가지고 미국에 가면 문제가 많다.

그 사람들은 정원이 공개되어 있다. 정원에 함부로 못 들어간다. 길 바로 옆인데 잘못 들어가면 총으로 쏘 버린다. 그때 그런 사건이 생겼다. 자기 정원에 들어왔다고 총으로 쏘 버렸다. 우리 같으면 상상이 되겠는가? 그것을 인간이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는 것이다. 왜 내 정원에 허락 없이 들어왔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남의 마당이고 어디고 아무데나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데 관념이 다르니까 판이 다르다.

하나님 나라도 관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자기가 생각하던 판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은 왜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법을 가지고 가서 미국에 가서 왜 이러냐 하면 말이 되겠는가? 미국법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 말이 되겠는가? 자기 판이 다르다.

우리 구원의 길은 새롭고도 산 길 예수 안에 있다. 모든 데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 율법으로부터 종교로부터 하여간 뭐로부터든지 일차적으로 태어난 모든 세계의 것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지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이다. 이것이 전부 바뀌어져야 교회도 교회로 보이고 교회 생활도 재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생활에 걸릴 것이 많다. 그래서 10년 20년이 되어도 걸릴 것이 있는 사람은 계속 걸리고만 있다. 그 걸리는 것을 처리하느라고 앞으로 전진을 못한다. 세상에서도 그 걸리는 것만 처리하고 다니면 끝이 없다. 끝이 안 난

다. 판을 바꾸면 아주 쉬운 것이다.

“소망(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3:15).” 준비하라는 것이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가? 그 이유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새롭고도 산 길, 지금 번역에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이것이 ‘새로운 살 길’이다.

우리가 여기서 자유가 있다. 참된 자유가 있다. 자유라고 하면 방종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자유는 방종한 자유가 아니다. 참된 자유가 있다. 사랑도 참된 사랑이 있다. 선악과의 판에서 생명과의 판으로 판이 바뀌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졌다. 판이 달라졌다는 말이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옛 세계에서 바다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왔다는 말이다.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새로운 판으로 불러내신 것이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교화해서 보내려고 불러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옛날 그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지금 다른 세상 사람이다. 다른 나라 사람이다. 한 지구상에 살지만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이다.

천주교인들은 이것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법으로 설정해놓았다. 그래서 영세명이 따로 있다. 그 이름은 바티칸에 등록되어 있는 호적이다. 그래서 외국 사람을 만날 때면 그 이름으로 통한다. 우리나라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부른다. 자기들은 다른 나라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름이 다르고 바뀌어진다. 우리도 새 이름으로 바뀌어진다. 판이 달라지면 새 이름으로 바뀌어진다.

예수 안에서 하나인 새로운 길로 가게 된다. 생명의 길이고 생명나무의 길이고 결국은 연합이고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 앞으로는 새롭고도 산길, 새로운 살 길에서 우리가 교통하기를 바란다.

오늘도 순모임 하실 때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살 길에서 교통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풍성하게 누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